

옛 사람

사도행전 16 : 11~15

이 명 직 목사님(1890. 12. 2~1973. 3. 30)은 한국성경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너

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나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 22-24)

옛사람이란?

옛사람이라 함은 인간의 부패한 도덕성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밀착되어 있는 죄의 성질입니다. 왜 옛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나이는 6,000세나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자범죄(自犯罪)이

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원죄(原罪-遺傳罪)입니다. 자범죄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범하고 입으로 범하고 손과 발로도 범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방법도形形色색이고, 범죄의 종류도 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원죄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같으며, 그 질(質)이나 양(量)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김씨의 원죄는 더 많고, 이씨의 원죄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갑(甲)의 원죄는 더 악하고, 을(乙)의 원죄는 덜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의 인류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원죄는 모두가 동일

합니다. 그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성경은 “옛사람”, “육”(肉), “손 뿌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두 마음

옛사람은 두 마음입니다(약4 : 8). ‘두 마음을 품는다’하는 것은, 곳 옛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전래(傳來)해 온 원죄와 양심(良心)이 있습니다. 양심은 거듭난 새사람과 화합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원죄는 이를 방해하여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롬7 : 22-23) 하였습니다. “다른 법”이란 곧 원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람” 곧 양심과 싸워 풍파를 일으킴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7 : 24)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

하게 하려함이니라” (갈5 : 17).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롬7 : 19)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옛사람이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는 동안은 항상 풍파가 일고 평안치가 못하여 언제나 전쟁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옛사람이 그 마음 속에 거하는 사람은 마치 리브가의 배 속에 쌍태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가 큰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창25 : 22), 언제나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려왔는데 그 책 속에 50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네 것이 아니니 갖다 주어라”하고, 한편에서는 “무일, 상관없다 네가 가져라”. 이처럼 “갖다 주어라” “주지 말아라”고 밤새 싸우는 중에 용기를 내어 그 다음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갖다 주어라”하는 것은, 새사람의 원하는 바요, “주지 말라”하는 것은 옛사람의 반대로, 선은 새사람이요 악은 옛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한 국민학생이 자기 어머니에게 ‘나는 돈 10전을 얻을 뻔하였다’고 하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은 즉, 저의 대답이 “길에서 돈 10전을 발견하였는데 내 마음 속에서 ‘집어가져라’ ‘안된다’하여 오랫동안 싸우다가 그대로 두고 왔다”하였다고 합니다.

저 빌라도의 마음 속에도 두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고 놓으려 하였으나 군중의 소리가 더욱 높았으므로 저는 양심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형집행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예수를 놓아 주자”는 것은 양심의 소리요, 군중의 소리에 복종한 것은 옛사람의 성질입니다. 이상 실례를 들어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두 종류의 성질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두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빛이 붉어지며 노(怒)한 것은, 옛사람의 발작입니다. 분노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20)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옛사람이 마음 속에서 발작할 때 자연히 노기(怒氣)가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택을 심방을 갔는데, 그 집에 옛사람이 크게 발동하여 온 가족의 얼굴에 노기가 충천하여 큰 소리로 요란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하듯 피하여 왔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은 소자에게 붓글씨 연습을 시키다가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크게 노하여 벼루를 들어 내던졌는데 손자의 다리에 맞아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손자의 다리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평안치가 못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다리를 다치게 한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리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진 것을 그 어머니되는 사람이 아이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야단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옛날 가인을 연상하리 만치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옛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개 분노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전에 000교회에 다니던 만복이 어머니는 한쪽다리를 절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안고 있다가 너무 운다고 화를 내어 땅에 내던져서 그같이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이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닌 옛사람 까닭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있는 동안은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고통이요 번민이요 불안입니다. 마치 뱃속의 회충과 같아서 뜻하지 않은 때에 발병됩니다. 회회낙락하다가도 분쟁하게 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중에도 갑자기 노기를 띠고 시비하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옛사람

옛사람의 존재는 자기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악을 행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동태를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 하사엘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저를 주목하여 보매 저가 부끄러워하거늘 엘리사가 우니 하사엘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에 엘리사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노니 그 성(城)에 네가 불을 놓으며, 장정(壯丁)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여치며 아이 뺨 부녀를 가르리라" 하나 하사엘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질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 관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였습니다. 하사엘은 사실상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요, 준비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으나 바로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서어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는 살인 역도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왕하 8:11-15 참조). 옛사람은 이처럼 자기도 모른 동안에 나타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 옛사람의 존재입니다. 어느날 어느 시에 무슨 죄악을 저지를런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수양도, 학식도, 근신도, 주의도 아무 효과나 소용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한번 발작할 때에는 모두가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로서도 그 존재를 깨닫지 못 하며 또한 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밝으신 빛 가운데서 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X광선보다 더 밝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고요히 그 빛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에 그 정체를 능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

나눔의 밝으신 빛을 힘입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처치(處置)

이 원수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치할 것입니까? 슬슬 어루만져서 그대로 눌러 놓을 것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가만있거라, 꼼짝 말고 있어라”고 억압하여 놓고서 “평안하다 평안하다”하면 안심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잠시는 눌러 있을런지는 모르나 어느 경우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옛사람을 처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도 할 수 없고, 압박하여도 할 수 없고, 수양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옛 품, 곧 옛사람을 십자가에 탕탕 못박아버려야 합니다(롬 : 6 : 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생의 자범죄(自犯罪)만 위하여서가 아니라 원죄(原罪), 곧 옛사람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곧 원죄나 자범죄를 다 깨끗이 맑게 하여 주십니다(요일1 : 7) 이와 같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승리의 생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있는 동안은 항상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하려는 작은 믿음에서, 근절시키는 큰 믿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믿는 자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마 8 : 13) 하셨습니다. 횃배를 앓는 사람은 안희만 시키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구충제를 먹어 구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안희적으로 일시 눌러 놓는다고 평안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일어나 단번에 십자가에 못박아 버려야만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깨닫고 이 은혜를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성결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매가 어려서부터 춤을 즐겨하여 장성한 후에도 연극장, 무도회 출입이 잦아 방랑생활을 함으로, 그의 어머니가 울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 자매는 전과 같이 극장을 향해 가는 길에 눈이 많

이 내려서 차가 막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곳에 열린 특별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기 신앙의 타락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허영의 옛사람, 외식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였습니다. 손을 들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였습니다. 전에는 육신을 위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지만, 이제는 영의 만족을 이기지 못하여 자연히 노래하게 되었고 춤을 추게 되었습

니다. 그리하여 그 자매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우리를 거룩케 함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옛사람을 당장에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본 설교는 1933년도 월간 2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이를 본지 발행인 홍순근목사께서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편집자 주>



“교회행사 구역, 교직자 동정”란이 다시 복원됩니다

지난 4월호부터 지금까지 우편법의 제한으로 게재가 중단되었던 “교회행사 교직자 동정”란이 다시 복원됩니다. 10월1일부터 우편법이 개편되면서 “교회행사 교직자 동정”란이 제약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란을 통하여 교회 내의 자세한 소식을 전국 교회들에게 자세하게 서로서로 알려서 성결가족들의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기능을 더 활발히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소식이나 교직자 교역자의 동정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활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마감은 전월(前月) 1일까지 마감입니다.